

바다위 섬 여행...신안 세일요트 닷 올렸다

10일부터 여행상품 판매

새해맞이 다도해 조망

투어·스테이 관광객 모집

4월엔 파워보트 추가 투입

신안군이 새해부터 요트를 활용한 해양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특히 아름다운 바다를 둘러보면서 섬들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신안 섬 관광 활성화로 이끌어간다는 구상이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10일부터 세일요트 '신안 천도전색호'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천도전색호'는 '천 개의 섬, 천 개의 빛깔'이라는 뜻으로 신안군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6억원(국비 9억원·군비 7억원)을 들여 건조한 55피트급 크루저(cruiser·정원 44명) 요트다.

면바다 항해가 가능한 선실과 엔진을 갖춰 크루저 요트로 분류되며 180마력 엔진

2기가 장착돼 있어 최고 10노트(시속 18km)로 운항할 수 있다.

지난 여름부터 요트 관광객을 모집했다가 동절기 안전 점검과 시설 보수 작업을 거쳐 새해 본격적 관광객 모집에 들어갔다.

휴가철 요트 관광은 연일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7월부터 누적 이용객만 4000명이 넘었을 정도다.

신안군은 여행객 트렌드에 맞춰 새해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투어 상품과 가족, 연인 등을 위한 스테이 상품으로 나눠 관광객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또 요트를 타고 바다와 섬 지역을 둘러보려는 여행객들의 수요를 고려, 오는 4월 54t급 파워보트를 추가로 투입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요트 여행 상품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아 파워보트를 추가로 투입하고 신안의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신안군이 섬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영중인 세일요트. 섬과 바다를 요트로 둘러보는 여행상품은 차별화된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신안군 제공>



함평 초·중학생 20명 캐나다 어학연수

내달 4일까지 선진문화 체험

함평지역 초·중학생들이 캐나다로 어학 연수(사진)를 떠났다.

함평군은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어학 연수를 실시한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한 영어경시대회 성적 우수자들로, 다음달 4일까지 캐나

다에서 어학 실력을 키우며 해외 선진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함평군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지역 초·중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 본격화

내년 1월부터 105억원 들여 21만4000㎡ 규모

영광군 묘량면 일대에 농공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고시하면서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105억 6000만원을 투입, 묘량면 신천·영양리 일대에 21만4000㎡ 규모의 묘량농공단

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이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음식·식품공업, 기계 등 제조업 분야 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2000년 분양이 완료된 군사농공단지(11만7000㎡)와 지난 2016년 100%를 마무리한 송림그린테크단지(14만4000㎡) 이후 부족한 소규모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함평에 KIA 퓨처스리그 전용구장 들어선다

구단 관계자 방문 건립 논의 郡, 스포츠 관광지 조성 박차

함평이 서부권 복합스포츠 휴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 이어 퓨처스리그 전용구장, 숙박시설까지 연계한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기아타이거즈 관계자들과 '함평-기아 챌린저스 필드 퓨처스리그 전용구장'(가칭) 건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일대 3만3715㎡ 부지에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을 짓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함평군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군수실에서 안병호 군수와 기아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등이 만나 전용 구장 건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3년 함평 챌린저스 필드(연습장)가 개장된 이후 내년 퓨처스리그 전용구장까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 5일 군수실에서 기아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과 만나 전용 구장 건립 등을 논의했다. <함평군 제공>

고 있다.

단장, 전용 야구장 완공으로 오는 2019년부터 퓨처스리그 지상파 중계가 이뤄지고 경기 관람객도 함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군은 여기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연계해 스포츠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함평군은 "영산강 강변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 스포츠 관광지로 도약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퓨처스 리그 전용구장 조감도.

무안군 취약계층 27가구

난방공사 등 주택 개보수

무안군이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낡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위해 1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27가구를 선정해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 대상 주택을 선정한 뒤 오는 6월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겨울철 알바 대학생 46명

영광군수와 '만남의 자리'

영광군에서 겨울철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대학생들이 군수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11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와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6주간 겨울철 아르바이트를 참여하는 대학생 46명이 참석, 김 군수에게 군정에 궁금했던 점 등을 물어보며 대화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보조, 민원안내 등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새 얼굴

“잘 사는 무안 만들기 기반 구축 최선”

장 영 식 무안부군수

“무안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장영식 무안군 신임 부군수는 최근 취임식을 갖고 “잘 사는 행복 무안”을 건설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고소득 생명농업 구현, 잘사는 어촌 개발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통하는 문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

에게도 자신을 주장하기에 앞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장 부군수는 지난 1981년 무안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전남도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국 차지 행정과장을 지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